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768-4776,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76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 영적안녕을 중심으로

정혜선[1*]
[1]공주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Factors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Focusing on Spiritual Well-Being

Hye-Sun Jeong[1*]
[1]**Division of Nursing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중국인 유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 영적안녕,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자료는 SPSS/PC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29점이었고, 전체 영적안녕은 5점 만점에 3.10점이었으며, 실존적 영적안녕과 종교적 영적안녕은 각각 3.67점과 2.54점 이었다. 한편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는 6점 만점에 4.37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문항별로 한국어 연습, 한국 생활에서 문제 발생 시 법적 자문, 한국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습득 순으로 높았다.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은 연령, 학년, 한국거주기간, 한국어능력, 종교에 대한 요구도, 실존적 영적안녕으로 파악되었고, 총 설명력은 36.1%이었다. 이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개선을 돕기 위해서는 종교활동에서 신앙지도와 함께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학생활 동안 문제가 발생했을 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실생활도움형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239 Chinese students in Korea were survey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1, 2014 to January 31, 201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ubjects' acculturation stress was 3.29 out of 5. Their overall spiritual well being was 3.10 out of 5, and their existential spiritual well being and religious spiritual well being were 3.67 and 2.54,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demand for religious activities was 4.37 out of 6.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were age, school year, period of stay in Korea, Korean language skill, demand for religion, and existential spiritual well being,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36.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ligious activities need to include programs not only for guiding their lives of faith but also for improving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their Korean language skill and supporting their practical lives while studying in Korea.

Keywords : Acculturative stress, Chinese students, Spiritual well-be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8년 63,952명에서 2010년 83,842명, 2014년에는 84,891명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은 2014년 50,336명으로 파악되어, 전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59.3%[1]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외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

*Corresponding Author : Hye-Sun Jeong(Kongju National University)
Tel: +82-41-850-0310 email: hsjeong@kongju.ac.kr
Received March 26, 2015 Revised (1st April 21, 2015, 2nd May 14, 2015, 3rd June 2,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015

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유학생들은 특히 낯선 문화에서 생활하면서 차별감, 향수병, 공포, 죄책감, 지각된 혐오감, 스트레스 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화 접촉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현상[2]을 말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유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잘 해결되지 못할 경우 우울, 정신건강, 삶의 질 저하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문제[3-6], 대학생활 부적응[7] 그리고 음주와 같은 불건강행위[8]와의 상관성이 보고되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나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한국거주기간, 거주형태, 건강상태 및 향후계획[4], 우울, 학업성적, 한국어말하기 능력[9], 전공성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만족도[10] 등이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여전히 중간수준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10-12].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 파악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유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중요하나,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혼자 유학생활에 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그동안 도움을 받고 의지하던 지지체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지각 수준은 높았고[4], 사회적 지지는 우울수준을 낮춘[13]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활 동안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지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결과[8-10,14]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15.1-31.6% 정도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교는 유학생활 중 현실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를 제공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지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영성은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통합과정으로, 인간의 영적인 측면은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인 요구이며, 인간의 삶에 관여되어 있으므로[15],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영적인 안녕상태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1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 영적안녕 상태는 스트레스와 부적상관[15]이, 영적안녕 중 실존적 영성은 심리적 안정과 정적상관관이 있었다[17]. 선행연구결과[18]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모임을 갖는 등의 행동적 참여와 종교의식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발현시키는 심리적 참여로 구분하여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행동적 참여가 아닌 심리적 참여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도 단순한 종교생활은 스트레스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19],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쳤고[20], 종교를 가진 대학생의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영적안녕이 심리적 건강을 설명하는 변수[15]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스트레스의 일종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종교생활의 질 또는 영적 안녕상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순한 종교활동 참여 유무 보다는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통합과정인 영적안녕이 유학생들에게 지지체계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유학생활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선교 시 정보적, 정서적 및 물질적지지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21]고 하였으나 실제 유학생들이 종교활동에서 얻고 싶은 부분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하다.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이 종교활동 시 얻고 싶은 지지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파악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영적안녕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적 안녕 및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적안녕 및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충청남도 소재 1개 대학교와 충청북도 소재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239명을 편의추출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10개를 기준으로, 중간정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최소 174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이를 충족하였다.

2.2 자료수집 과정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재한 중국인 유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59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20부를 제외하고 239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제작된 한국어 설문지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간호학과 교수 1인과 중국인 유학생 2인에게 내용타당도 및 설문지의 구성과 사용된 단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이후 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교의 어학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어와 한국어 활용에 문제가 없는 중국인 강사가 중국어판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2014년 8월 중국인 유학생 1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을 수정하였고, 최종 중국어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명의 연구보조자인 중국인 유학생이 수행하였으며, 연구보조자는 연구시작 전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내용, 설문지 작성의 주의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연구보조자가 해당 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일대일로 만나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내용 등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아 윤리적 측면을 이행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를 연구보조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Sandhu와Asrabdi (1994)[2]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IS)를 Kyung (2010)[8]이 이용하였던 도구로 파악하였다. 총 36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36-1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개발당시[2]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2 영적안녕

Paloutzion 과 Eillison (1982)[22]이 개발한 영적안녕 척도를 Choi (1990)[23]가 번역하고, Cheung et al (2001)[24]과 Kang (2003)[25]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척도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이 척도는 종교적 영적안녕 10문항과 실존적 영적안녕 10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rnbach's alpha 값이 Choi (1990)[23]의 연구에서는 .91, 본 연구에서는 전체 .87, 실존적 영적안녕 .77, 종교적 영적안녕 .96 이었다.

2.3.3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는 Kim (2011)[21]과 Jung (2010)[2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활 동안 종교활동을 할 때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영적 측면, 문화적 측면 및 교육적 측면 등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지각하는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도록 구성된 총 15문항의 6점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15-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간호학과 교수 1인 및 중국인 유학생 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고,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2.4 자료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및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나타내었고, 문화적응스트레스, 영적안녕 및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대상자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 Duncan 사후검정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 특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상자 중 여성이 59.8%(143명)이었고, 연령은 21-24세가 72.4%(173명)이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3.4%(32명)이었다. 학년은 어학원이 4.2%(10명), 1,2학년이 39.7%(95명), 3,4,5학년이 56.1%(134명) 이었고, 소속대학은 인문사회대학이 59.4%(142명)로,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39.3%(94명)로, 한국거주기간은 13-36개월이 46.0%(110명)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에 대한 필요도는 '그저 그렇다'가 50.2%(120명), '필요하다'가 20.5%(49명)이었다. 한국어능력은 67.4%(161명)가 '보통'에, 학교나 학과행사 참여정도에서는 45.6%(109명)가 '보통'에 응답하였다.

한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연령, 학년, 소속대학, 거주형태, 한국거주기간, 종교필요도, 한국어능력과 학교나 학과행사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21-24세 3.30점, 25세 이상 3.41점으로 20세 이하의 3.01점보다 높았고(F=4.929, p=.008), 학년에 따라 어학원 2.41점, 1,2학년 3.10점, 3,4,5학년 3.47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각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다(F=34.391, p<.001). 또한 소속대학에 따라서는 사범대학/예술대학이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대학 3.24점, 자연과학대/공대 3.20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어학원이 2.41점으로 가장 낮았다(F=13.382, p<.001). 거주형태에 따라 기숙사와 자취가 각각 3.41점과 3.30점으로 기타/하숙의 3.09점보다 높았고(F=8.012, p<.001), 한국거주기간에 따라서는 36-60개월이 3.43점으로 13-36개월의 3.15점보다 높았다(F=6.495, p=.002). 지각하는 종교필요도에 따라 '필요없다'가 3.45점으로 '그저 그렇다'와 '필요하다'의 3.21점과 3.23점보다 높았고(F=4.853, p=0.09), 한국어 능력에 따라 높음이 3.50점으로 낮음과 보통의 3.23점, 3.24점보다 높았으며(F=3.355, p=.037), 학교나 학과행사 참여정도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군이 3.45점으로 보통의 3.15점보다 높았다(F=6.369, p=.002)[Table 1].

Table 1. Acculturative Stress among Subject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N=239)

Variable	N(%)	Job stress	
		M(SD)	t(p)/F(p)
Gender			
female	143(59.8)	3.31(.55)	1.045(.297)
male	96(40.2)	3.23(.50)	
*Age			
≤20	27(11.3)	3.01(.73)a	4.929(.008)
21≤ ≤24	173(72.4)	3.30(.47)b	
25≤	39(16.3)	3.41(.57)b	
Religion			
Yes	32(13.4)	3.42(.52)	1.584(.115)
No	207(86.6)	3.26(.53)	
*School year			
Language school	10(4.2)	2.41(.62)a	34.391(<.001)
1st & 2nd year	95(39.7)	3.10(.39)b	
3rd ~ 5th year	134(56.1)	3.47(.50)c	
*Colleg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42(59.4)	3.24(.44)b	13.382(<.001)
Natural science/ Engineering	31(13.0)	3.20(.56)b	
Education/arts & physical education	56(23.4)	3.57(.49)c	
Language school	10(4.2)	2.41(.62)a	
*Type of residence			
Dormitory	94(39.3)	3.41(.63)b	8.012(<.001)
Self boarding	72(30.1)	3.30(.52)b	
Others	73(30.5)	3.09(.28)a	
*Length of stay in Korea			
≤12 months	42(17.6)	3.32(.72)ab	6.495(.002)
13-36month	110(46.0)	3.15(.42)a	
36< ≤60	87(36.4)	3.43(.51)b	
*Need of religion			
Not necessary	70(29.3)	3.45(.56)b	4.853(.009)
So so	120(50.2)	3.21(.43)a	
Necessary	49(20.5)	3.23(.65)a	
*Korean language skill			
Low	43(18.0)	3.23(.74)a	3.355(.037)
Average	161(67.4)	3.24(.48)a	
High	35(14.6)	3.50(.42)b	
*Participation in school/department events			
Inactive	61(25.5)	3.45(.48)b	6.369(.002)
So-so	109(45.6)	3.15(.43)a	
Active	69(28.9)	3.32(.66)ab	
Total mean		118.09(19.12)	
Grade Point Mean		3.28(.53)	

*ANOVA(Duncan) c>b>a

3.2 문화적응스트레스, 영적안녕,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80점 만점에 117.48(19.26)점, 평점평균 5점 만점에 3.29(.54)점이었고, 전체 영적안녕은 100점 만점에 62.01(10.80)점과 5점 만점에 3.10(.52)점이었으며, 실존적 영적안녕은 36.71(5.19)점과 3.67(.52)점, 그리고 종교적 영적안녕은 25.39(9.35)점, 2.54(.94)점 이었다. 한편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는 각각 90점 만점에 65.16(17.66)점, 6점 만점에 4.37(1.18)점 이었다[Table 2].

Table 2. Acculturative Stress, Spiritual Well-Being and Demands for Religious Activities among Subjects (N=239)

variable	Mean(SD)	Mean(SD)
Acculturative stress	118.48(19.26)	3.29(.54)
Spiritual well being	62.01(10.80)	3.10(.54)
existential well being	36.71(5.19)	3.67(.52)
religious well being	25.39(9.35)	2.54(.94)
Demand for religious activity	65.16(17.66)	4.37(1.18)

3.3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

중국인 유학생의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는 6점 만점에 4.37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문항별로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는 한국어 연습 4.89점, 한국 생활에서 문제 발생 시 법적 자문 4.81점, 한국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4.75점,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습득 4.73점 순으로 높았고, 신앙상담 3.00점, 교리교육과 예배활동 3.16점, 경제적인 도움(식사, 생활용품 등) 3.85점 순으로 낮았다[Table 3].

Table 3. Demand for Religious Activities (N=239)

Item		Mean (SD)
1	Economic support (meal, daily supplies, etc.)	3.85(1.84)
2	Job (part time work) information	4.27(1.63)
3	Scholarship	4.49(1.61)
4	Doctrinal education and worship activities	3.16(1.92)
5	Religious counseling	3.00(1.94)
6	Free medical examination for foreign students	4.74(1.46)
7	Medical consultation, information on medical institutions, accompanying on hospital visits	4.56(1.55)
8	Making Korean friends and providing social gatherings	4.65(1.39)
9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 through experiences in Korean culture	4.75(1.26)
10	Various services (haircut/hairdressing services,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ervices, etc.)	4.40(1.56)
11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upport	4.26(1.64)
12	Legal advices on problems in life in Korea	4.81(1.34)
13	Practice of the Korean language	4.89(1.30)
14	Acquisit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life in Korea	4.73(1.38)
15	Multicultural programs	4.69(1.43)
	Total Mean	65.16(17.66)
	Grade Point Mean	4.37(1.18)

3.4 문화적응스트레스, 영적안녕 및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의 관계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와 음의 상관관계(r=-.213, p=.001)가 있었고, 실존적 영적안녕(r=.399,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는 종교적 영적안녕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76, p<.001)[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Acculturative Stress, Spiritual Well-Being and Demands for Religious Activities (N=239)

Variable	Demand for religious activities r(p)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r(p)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r(p)
Accultuative stress	-.213 (.001)	.399 (<.001)	.002 (.978)
Demand for religious activities		.077 (.253)	.276 (.<.001)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009 (.888)

3.5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존적 영성, 종교적 영성 및 종교활동 요구도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인 대상자 특성 중, 한국거주기간, 지각하는 종교필요도, 학교 및 학과 행사참여정도는 점수분포가 일방향이 아니므로 이 변수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상관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한국거주기간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r=.135, p=.043)를, 지각하는 종교필요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r=-.145, p=.030)를 보였고, 학교 및 학과 행사참여정도는 상관성이 없었다

(r=-.050, p=.458). 따라서 최종회귀 분석에서 대상자 특성 중에서 학교 및 학과 행사참여정도는 제외하였다.

회귀 분석결과 모형의 공차한계(Tolerance)는 .350-.832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203- 2.858로 10보다 크지 않아 본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β=.208, t=2.351, p=.020), 학년(β=.259, t=2.768, p=.006), 한국거주기간(β=-.203, t=-2.437, p=.016), 한국어능력(β=.158, t=2.571, p=.011),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β=-.176, t=-2.756, p=.007), 실존적 영적안녕(β=.322, t=5.301, p<.001)이었으며, 이들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36.1%이었다 (F=12.731, p<.001, R^2=.391, Adj R^2=.361)[Table 5].

Table 5. Influence Factors on Acculturative Stress

(N=239)

Variable	β	t	*adj* R^2	F(p)
Constant		1.099(.273)	.361	12.731 (<.001)
Age	.208	2.351(.020)		
School year	.259	2.768(.006)		
College	.080	1.234(.218)		
Type of residence	.020	.290(.772)		
Length of stay in Korea	-.203	-2.437(.016)		
Need for religion	-.030	-.445(.657)		
Korean language skill	.158	2.571(.011)		
Demand for religious activities	-.176	-2.756(.006)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322	5.301(<.001)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077	1.177(.241)		

4. 논의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29점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파악한 선행연구 결과인 95.17점[10], 82.7점[11] 그리고 평점평균 2.08점[4]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선행연구결과[27,2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어학능력 이외에도 우울이나 사회적지지 등과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종교활동을 사회적지지의 한 형태로 보고, 영적안녕이나 종교활동을 중심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우울 등의 변수를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높았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울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정신건강[3]이나 대학생활 적응에도 어려움[7]이 있어 이유를 파악함과 동시에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파악된 영적안녕 정도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인 전체 영적안녕 63.45점, 실존적 영적안녕 34.39점, 종교적 영적안녕 30.70점[20]과 비교하여 종교적 영적안녕에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일반 대학생의 경우 종교 유무와 성별에 따라 종교적 영적안녕과 실존적 영적안녕을 파악한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 남성에서 종교적 영적안녕 46.28점, 여성에서 50.45점,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34.66점과 35.69점으로 종교를 가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종교적 영적안녕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15].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의 종교적 영적안녕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본 연구대상자 중 종교를 가진 경우는 13.4%로 한국대학생의 54.1%[15]나 57.7%[20]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결과에서 종교적 영적안녕과 실존적 영적안녕 모두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만큼[17], 지속적으로 유학생들이 영적안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결과[29], 전인적 관점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은 영적안녕을 증진시켰고, Jung(2012)[30]도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성관련 교양교과목의 교과내용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이들의

영적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는 6점 만점에 4.37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는 본 연구에서 새로이 파악한 개념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점수가 중간이상으로 높아서 종교활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문항별로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는 한국어 연습, 한국 생활에서 문제 발생 시 법적 자문, 한국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습득 순으로 높았고, 신앙상담이나 교리교육, 예배활동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생활 동안 종교활동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대학의 선교단체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함에 있어서 종교적 및 신앙생활 지도 이외에도 본 연구결과 파악된 유학생들의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생활도움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연령이나 학년이 높을수록,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능력이 좋다고 인지할수록,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낮을수록 , 그리고 실존적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6.1%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어 능력이나 거주기간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결과[27]나, 성적과 한국어수준이 좋거나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다는 결과[9,31]와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이 좋거나 한국거주기간이 긴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결과는 이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이유 중 한 가지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언어를 매체로 하는 한국문화 노출수준이나 노출시간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모국과 다른 문화접촉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종교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경우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는 종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경우 그만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전략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에는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나 스트레스 대처전략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실존적 영적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다. 영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자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내적자원[32]을 말한다. 선행연구결과 영적안녕상태가 높은 경우 대학생활 적응[33]과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리적 안녕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17,34] 보고되어, 실존적 영적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결과는 이와 달랐다. 이는 최근 젊은이들에게 잘 알려진 한류문화의 표현방식이나 문화의 정서가 영적안녕상태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오히려 문화를 수용하고 이에 동화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적안녕과 대학생활 적응, 스트레스 등과의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적안녕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하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 영적안녕 수준이 높은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던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기숙사 거주학생은 39.3%로, 선행연구의 56.9-89.3%[9-11]보다 적은 편이었고 기숙사 거주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최종분석결과 거주형태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아니었으나 이는 기숙사 이외 거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더욱 높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 이었다[4,9,11]. 같은 공간에 거주할수록 익숙한 문화에 많이 접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단순히 거주형태보다는 중국인 유학생의 수와 그들이 형성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연령, 학년, 한국거주기간, 한국어능력,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 실존적 영성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유학생 중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았던 대상자 집단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 파악된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도를 중심으로 영성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2013-2014, from http://www.moe.go.kr.

[2] D. S. Sandhu, B. R. Asrabadi,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 Rep*, 75, pp.435-438, 1994.
DOI: http://dx.doi.org/10.2466/pr0.1994.75.1.435

[3] C. G. Kim, J. S. Lee, "The effects of Chinese students' cultural adjustment stress on mental health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pp.230-242,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2.14.12.230

[4] K. E. Lee, Y. H. Yom, H. K. Chang, "Influence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 17(3), pp.516-525,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514

[5] M. W. Driscoll, L. Torress, "Acculturative stress and Latino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behavioral and cognitive resources", *Cultur Divers Ethinic Minor Psychol*, 19(4), pp.373-382, 2013.
DOI: http://dx.doi.org/10.1037/a0032821

[6] L. J. Crockette, M. I. Iturbide, R. Torres-Stone, M. McGinley, M. Raffaelli,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relations to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4), pp.347-355, 2007.
DOI: http://dx.doi.org/10.1037/1099-9809.13.4.347

[7] J. S. Baik, "Variables affecting college adaptation among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Korea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3), pp.119-131, 2011.

[8] S. Y. Kyung,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2010.

[9] H. K. Kim, Y. J. Son, M. R. Lee, K. C. Lim, H. K. Chang, S. J. Han, et 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n", *J Korean Acad Adult Nurs*, 22(2), pp.143-153, 2010.

[10] J. A. Kim, I. K. Kim,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17(1), pp.52-61,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52

[11] M. R. Yoo, S. Y. Choi, Y. M. Kim, S. J. Han, N. Y. Yang, H. K. Kim, et al, "Acculturativ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 19(3), pp.320-329,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20

[12] E. S. Her, H. J. Park, "Interrelations among acculturative stress and, recognitions, preferences and eating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food by Chinese students in Korean", *Korean J. Food & Nutr,* 26(2), pp.216-225, 2013.
DOI: http://dx.doi.org/10.9799/ksfan.2013.26.2.216

[13] M. J. Jin, S. M. Bae, M. H. Hyun, "Th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4), pp783-797, 2011.

[14] H. S. Jeong, "Stress and counseling need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2B), pp.949-963, 2012.

[15] K. H. Suh, S. J. Chung, J. H. Koo, "Spiritual well-being, life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pp.1077-1095, 2005.

[16] K. K. Chon, B. D. Chung, Y. H. Kim, "The role of the spiritual well-being in the relations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Communication Disorder*, 23(1), pp.311-325, 2000.

[17] H. R. Hwang, K. H. Suh, J. Y. Kim, "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4), pp.709-724, 2011.

[18] J. Su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ies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Unpublished masters'thesis, Daeshin Christian University, Gyeongsan, 2010.

[19] S. Y.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ncept and

relig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school-life satisfaction f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1(1), pp.257-278, 2013.

[20] S. Y. Yun, S. H.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pp.395-403,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395

[21] S. R. Kim, "Culture adjustment and mission strategy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Logos Management Review*, 9(2), pp.194-213, 2011.

[22] R. F. Paultzian, C. W. Ellison,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224-236, ed by Peplau LA and Perman D New York, John Wiley and Son, 1982.

[23] S. S. Choi, "A correlational study on spiritual wellness,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urban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90.

[24] S. D. Cheung, J. B. Lee, H. B. Park, J. S. Kim, D. S. Bai, K. H. Lee, J. K. Sagong, C. J. Song, J. W. Bai,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piritual well being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2), pp.230-242, 2001.

[25] G. N. Kang, "Validity analyses on Korean spiritual well-being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6(2), pp.111-130, 2001.

[26] M. K. Jung, "Christian missions in the immigrants of Korea toward the multicultural soc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Anyang, 2010.

[27] H. J. Lee, "Determinant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the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language skills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9(2), pp.183-194. 2011.

[28] H. J. Le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the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language skill,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n Society for Wellness*, 7(3), pp.129-143, 2012.

[29] E. S. Kang, Y. H. Kim, K. R. Lee, "The effect of holistic health program o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5), pp.2172-2179,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5.2172

[30] M. Y. Chung, "A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to establish spirituality courses for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3), pp.721-741, 2012.

[31] I. S. Na,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tress among foreign students", *KOREAN NPO REVIEW*, 5(2), pp.159-197, 2006.

[32] P. J. Oh, K. A. Kang, "Spiritualit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Nursing*, 30(5), pp.1145-1155, 2000.

[33] C. Low, P. Handal,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5), pp.406-412, 1995.

[34] K. Maton,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piritual support: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investig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3), pp.310-323, 1989.
DOI: http://dx.doi.org/10.2307/1386742

정 혜 선(Hye-Sun Jeong) **[정회원]**

- 199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7년 3월 ~ 2010년 7월 : 강동대학교 교수
- 2010년 7월 ~ 2014년 2월 : 청주대학교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다문화간호, 건강증진, 공감